

解放以後 漢詩 盛衰樣相의 一考察

- 全州中心의 漢詩人 脈絡을 찾아 -

金榮鵬*

<차 례>

1. 序論
2. 韓末以後 全州지방의 漢詩文學 傳統
3. 金堤 吳然鎬(1902년~1983) 漢詩의 浮彫
4. 全주의 現存 漢詩作家와 白日場大會의 특징
 - 4.1 茶村 權寧八, 松南 李炳基의 漢詩 活動
 - 4.2 井邑 漢詩白日場大會의 作品 樣相
5. 結論

1. 序論

漢字가 전래되어 오면서 우리나라는 中國, 日本, 베트남 등과 함께 東洋 文化의 특징인 漢字 文化圈이 되어 왔다. 統一新羅時代 이후 唐나라의 近體詩가 유입되었고, 崔致遠이 근체시를 창작한 이래 역대 많은 漢詩人을 배출하였다.

高麗時代를 거쳐 朝鮮時代의 漢文은 公文書 뿐만 아니라 科擧 試驗 答案을 작성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져 왔다. 조선 후기에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마을마다 書堂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 결과 일반 서민들도 書堂을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漢詩를 접하게 되었다. 양반이 아닌 委巷人들도 詩社를 조직하여 활동하게 되었으며, 漢文學에서 散文보다 는 오히려 詩歌가 文學의 主流를 이루게 되었다. 丁若鏞은 <老人一快事 六首效香山體>의 5수에서 “나는 조선인이므로, 조선시를 짓는다(我是朝鮮人, 甘作朝鮮詩)”라고 씀으로써 漢詩를 朝鮮詩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원칙적으로 漢詩는 中國詩이지만 韓國으로 유입된 이후 韓國詩로서 자율성이 생긴 것이다. 한국의 近體詩라 함은 중국의 近體詩를 근간으로 하면서, 우리의 보편성 있는 文學으로 자리 잡았던 것이다.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자유자재로 구사했던 韓國漢文學은 1894년 甲午更張으로 科擧制度가 폐지되면서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다. 새로운 관리등용제도가 마련되면서 국문이 첫 번째 시험과목이 되었고, 小學校 교과서를 편찬함에 國漢文體로 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해도 漢文散文과는 달리 漢詩文學은 이미 우리 文學으로 자리 잡았기에, 자유시가 등장하는 1920년대 중반까지 각종 언론매체의 詞藻 欄을 통하여 활발한 창작과 유통이 이루어지게 되었다.¹⁾

日帝는 강점기 35년 사이에 4차례 걸친 朝鮮教育令을 발표하면서, 한국인들에게 愚民化教育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解放이 되면서 문맹률이 80%로 늘어나게 되었고, 우리 문학으로서의 漢詩文學도 경제적인 어려움과 더불어 인기를 잃어가고 점차 사람들의 관심 밖이 되어 버렸다. 한글 전용론이 확산되어 간 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직도 高齡 層을 중심으로 漢詩에 흥미를 가지고 漢詩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1) 주승택, 「국한문 교체기의 언어생활과 문학 활동」, 『大東漢文學』(第二十輯), 大東漢文學會, 2004, 288쪽.

* 전주 완산고등학교

그럼에도 漢詩 創作이 解放以後 어떻게 계속되어왔고,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으며, 자료 또한 제한적이다.

본고는 이런 점을 주시해서 해방이후 全州地方을 중심으로 한 漢詩 創作의 盛衰 樣相을 考察하게 되었다. 연구의 방법으로 우선 韓末 以後 全羅道地方에서 활동했던 湖南三傑을 중심으로 한 漢詩人들의 軌跡을 살펴볼 것이다. 이들은 서로 특별한 교유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이들의 漢詩文學 活動이 전라도지방에서 단연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들의 문학적 전통을 이어받아 해방이후 전북지방에서 漢詩 創作을 해왔던 杜南 吳然鎬의 文稿에 있는 漢詩들의 특징을 살펴 보려한다. 그리고 전주에서 지금도 漢詩作家로 활약하고 있는 茶村 權寧八이나 松南 李炳基의 漢詩 作品을 분석해 보고, 마지막으로 1990년대 이후 全國 漢詩白日場大會의 事例를 통하여 漢詩 製作의 現況을 알아 보려한다. 특히 井邑文化院에서 추진해오고 있는 全國漢詩白日場大會의 資料를 통하여 漢詩 消滅樣相을 살펴볼 것이다.

2. 韓末以後 전주지방의 漢詩文學 傳統

19세기 호남 문단에서 全州地方의 漢詩 活動은 미미하기 그지없었다. 그런데,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湖南三傑이 등장하면서 호남 북부의 전주지방이 왕성한 문단을 이루게 되었다.²⁾ 호남삼걸이란 石亭 李定稷(1841~1910), 海鶴 李沂(1848~1909), 梅泉 黃玟(1855~1910)을 말한다. 이 가운데, 석정과 해학은 전북 김제 출신이었다. 매

천 황현 또한 전북지방의 장수황씨로 그의 조부와 부친은 남원에서 世居했던 인물이었다.

매천 황현은 조선 후기 역사서인 『梅泉野錄』의 저자로, 秋琴 姜瑋(1820~1884)와 滄江 金澤榮(1850~1927)과 함께 韓末 3대 詩人이었다. 그리고 당시 문단의 주도자이며 『黨議通略』의 저자인 이견창이나 창강 김택영과 交友關係를 가졌던 인물이었다. 매천은 愛國詩나 民俗詩는 물론 농촌에 파묻혀 살면서 평민의식을 반영하는 農村詩 내지는 농민의 참상과 애환을 그린 社會詩를 썼던 시인이었다. 1883년 29세 때 작품 〈同福峽中二首〉나 1895년에 쓴 〈種菸謠〉, 1904년〈村居暮春〉제6수는 매천의 농민의식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시이다. 1895년에 장단악 부제로 쓰여진〈祭農神辭〉에서 “民亦勞只兮不可以他望 백성은 역시 다만 힘쓸 뿐, 딴 것은 바라지 않도다/ 年年歲歲兮惟有豐穰 해마다 해마다, 오직 풍년이 들게 하소서”라고 읊어 풍년을 염원하는 농민의식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1903년 49세 때 지은 〈季方以近體四首見寄,依韻和之〉에서는 “空戴儒巾首四民 공연히 유건을 쓰고 사민의 우두머리 되었네”라고 읊어 儒者가 아닌 平民意識을 반영하였다. 이와 같은 매천의 詩文들은 전라도 지방에서 農民들도 漢詩를 쓸 수 있는 위상을 提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04년 매천이 지천명의 나이에 쓴 〈哭趙碧下〉에서는 전주지방에서 활동했던 문인들의 활동을 밝혀 드러내었다. 七言絶句 4首 중 첫째 시를 본다.

宋松齋後李蒼岩
冬有陽
鼎足叁差碧下三
沃麻馬羣
論定千秋東筆苑
徑尤質

송송재, 이창암, 조벽하 세분은
술밭처럼 어슷비슷 나란히 섰네
우리나라 필원의 천년 역사 따진다면

2) 구사희, 「石亭 李定稷의 詩意識과 文藝論의 特質」, 『韓國言語文學』(第54輯), 2005, 62쪽.

未應寂寞我湖南
蒸 藥 虞覃

결단코 우리 호남이 적막하지 않았네³⁾

起句에 나오는 宋松齋, 李蒼岩과 承句에 나오는 碧下는 全州地方에 살았던 대표적인 서예가, 문인들이었다. 碧下 趙周昇(1854~1903)은 김제에서 태어나 전주에서 살았으며, 석정 이정직에게 배운 인물이었다. 홍선대원군이 그의 글씨와 난을 보고 ‘倉蘭碧竹’이라 칭송하였다고 하며, 법주사 현관을 쓰기도 했다. 매천은 宋松齋, 李蒼巖, 趙碧下와 같은 훌륭한 인물들이 호남에 있어 적막하지 않았다고 표현하였으며, 碧下의 죽음에 대해서 매천은 弔가 아닌 罵자를 써서 조상하기도 하였다.⁴⁾

七言絶句의 平起法으로 쓰여 진 이 시는 漢詩 作법상으로 흠점이 없다. 매천은 近體詩가운데 주로 七言律詩를 즐겨지었는데, 이것은 그의 성격이 올곧고 성격이 뚜렷한데서 오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漢詩는 조선시대 중기에 와서 三唐詩人 崔慶昌·白光勳·李達의 絶句가 인기가 있었고, 우수한 점도 있었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는 科体詩나 樂府体詩와 같은 하위개념의 시들도 많았지만 律詩가 더 인기가 있었고, 律詩 作家로는 매천이 최고였던 것이다.⁵⁾

이처럼 호남북부지방에서 松齋, 蒼岩, 碧下 등의 예술 활동은 아무래도 全州地方에서 漢詩를 짓고 글씨와 그림을 그리는, ‘藝鄉의 고장’으로 불려지는 전통을 갖게 되었다. 전남 구례에서 살았던 매천은 海鶴 李沂(1948~1909)에게 준 漢詩들을 통해 그의 심중을 토로하는 사연을 담았다.⁶⁾ 해학은 金提 성덕 출신으로 萬頃과 죽산을 중심으로 살았으며,

혁명가로서 구례 마산에 거처하기도 하였다. 그런 해학이 1909년 7월 서울의 旅舍에서 타계했을 때 매천은 <哭海鶴>의 칠율 5수의 弔挽詩를 썼으며, <哭李海鶴文>의 祭文까지 쓰면서 해학의 죽음을 慟哭하였다. 그리고 매천은 石亭 李定稷(1941~1910)과도 문학 논쟁을 벌이며 주고받은 詩文들이 많았다.⁷⁾ 石亭은 김제와 전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詩書畫 三絶을 이룬 인물이었고,

『燕山石房未定藁』에 927題 1,279首의 시작품과 20여 문체의 산문 273篇을 남겼다.⁸⁾ 인간 내면의 순수한 심성과 수양 그리고 학문과 예술의 세계를 왕성하게 시로 담아냈던 것이다.

이들 호남3결들은 詩的 傾向에 있어서 각각의 독자성과 다양성을 지니고 있었지만⁹⁾ 이들의 문학 활동 결과 오늘날 호남 북부지방인 全北 文壇의 品格과 位相은 높아지게 되었다. 매천이 漢陽과 全羅監營의 全州를 오고가면서 全州에 있었던 석정의 韓藥房을 중심으로, 전북의 선비들과 관계를 맺고 접촉하면서 漢詩文學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海鶴이나 石亭외에 전북지방 인사 또는 전북과 관련된 매천의 14편이나 되는 詩들¹⁰⁾을 통해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金進士鏞, 洪雲

主置酒泉隱寺, 見招余, 興疾赴之, 二山海鶴小川亦至, 共賦, 1898년 聞海鶴遇盜於蘆嶺, 失衣裝, 詩以代嘲, 1900년 歲暮懷人諸作, 에서 李海鶴沂, 등을 들 수 있다.

7) 1895년 得李石亭定稷書, 1897년 石亭十竹圖, 1897년 携石亭往兎洞, 1897년 「石亭見過弊居贈古詩, 次其韻, 仍有唱酬, 1897년 送石亭至冷泉, 歸路有吟, 1900년 韻海內存知己, 天涯若比鄰十字, 寄壽石亭老友, 1900년 歲暮懷人諸作, 에서 李石亭定稷, 등을 들 수 있다.

8) 구사희, 石亭 李定稷의 詩意識과 文藝論의 特質, 『韓國言語文學』第54輯, 2005, 45쪽.

9) 위의 책, 62~63쪽.

10) 1885년 金進士鏞挽, 1890년 龍城遇大雪, 1896년 過龍城, 訪白兼山觀察, 因成信宿, 時西堂以幕僚在坐, 1897년 寄全州崔慶日, 1897년 題金孝燦龍城今稿, 1898년 雲峯訪朴鳳陽大捷碑, 1898년 踰六十嶺, 1898년 義妓論介碑, 1899년 過南原, 1899년 全州, 1902년 南原玄圃, 哭洪雲坡宜變, 1906년 次扶安朴孟玉韻贈別, 1908년 「

3) 黃玑, 『梅泉全集』(권1), 全州大 湖南學研究所, 1984, 291쪽.

4) 이병기, 김영봉 공역, 『譯註 梅泉黃玑詩集』하권, 보고사, 2007, 167쪽.

5) 줄고, 『黃玑詩研究』, 全北大 大學院 석사논문, 2005, 39~40쪽.

6) 1890년 送李海鶴沂往達城, 1891년 赴海鶴華寺之約, 1898년 六月二十日, 錦土城

坡宜變, 崔慶日, 朴孟玉, 盧處仁 등은 매천이 관계를 맺고 있었던 남원, 전주, 부안, 익산 등지에 사는 인사들이었다.

한편 全北 부안 계화도에서는 性理學者인 艮齋 田愚(1841~1922)의 독자적인 漢文學 활동도 있었다. 간재는 매천이 타계했을 때 哀辭를 지어 弔喪하기도 하였다.¹¹⁾

1905년 이후 매천의 知友였던 鳳溪 高墉柱가 전주의 養英學校 교무로 근무하고 있을 때 매천은 「養英學校記」를 쓰게 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유학의 창달과 새로운 실학적 교육에 의리를 저버릴 수 없다. 사 이비 유학교육이 아니고 진짜 六經의 정도를 창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 자. 기예를 스승으로 삼고, 그릇은 쓸모가 있어야 한다.”¹²⁾라는 글이었다. 그만큼 매천은 호남지방을 대표하는 巨儒로 穩健開化 내지는 改新 儒學者로서 국내에서도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

매천은 그의 저서 『梅泉野錄』에서, “갑오년 뒤에 시세를 따르는 자들이 언문을 추켜서 국문이라 부르고, 眞書를 외국 글자라고 구별하여 漢文이라 불렀다. …경박한 자들이 漢文 廢止를 주장했지만 추세가 따라오지 못해서 그만두었다.”¹³⁾라고 말하면서 국문을 쓰는 바람직한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 결과 매천은 국문학 작품을 남기지 않았다는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 평생을 漢籍속에서 독서만 하고 살았던 매천이었기에 한글 쓰는 것이 습관화되지 않았고, 한글 보다는 漢文으로 글을 쓰는 것이 더 쉬웠기 때문이다.

金台俊은 『朝鮮漢文學史』에서 韓國漢文學史의 하한점을 매천 황현, 장강 김택영이 활약했던 조선말엽까지로 잡았지만¹⁴⁾ 이가원, 조동일,

윤동제는 漢文學史의 하한점을 1940년대까지 보고 있어¹⁵⁾ 韓國 漢文學이 아직 쇠퇴하지 않았음을 알려주고 있다.

3. 金堤 吳然鎬(1902년~1983) 漢詩의 浮彫

杜南 吳然鎬 文稿의 구성은 두남의 漢詩 作品 229편과 두남의 9대조인 退庵 吳大立의 漢詩 8편과 그의 시에 화답한 아우 둘의 詩 한편씩, 그의 吳公忠孝旌閭記와 이 정려를 건립한 禮曹立案, 두남의 부친인 芝山 吳在燾(1864~1943)의 漢詩 68편을 포함하여 그의 비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결국 두남의 작품 229편에 이어 부록에 있는 136편을 합하면 이 문고에 있는 漢文學 作品 數는 전부 365편이 된다.¹⁶⁾

두남문고에 있는 「芝山居士吳公墓碣銘立書」에 의하면 芝山 吳在燾는 ‘가세가 빈곤하였으나 천성이 효성스러웠고, 어릴 제 술서를 섭렵하고 의거했지만 말년에 그 잘못을 깨닫고 그 책들을 불태워버렸다.’고 한다. 漢學者로서 遺稿 『芝山詩集』을 남기기도 했던 인물이었다.

두남은 김제시 성덕면 대목리 301번지에서, 芝山 吳在燾와 이천 서시의 차남으로 1902년 출생했다. 두남은 부친으로부터 漢學을 배운 것이 學歷의 전부였다. 두남은 신교육을 받은 일이 없고, 이렇다 할 人脈이나 학력도 없었지만, 1952년 실시한 지방자치 선거에서 民選 성덕면

益山半栗村, 訪盧處仁不遇, 1908년 「鎮安雙溪亭」 등을 들 수 있다.

11) 『梅泉全集』(卷4), 全州大湖南學研究所, 1984, 336쪽.

12) 李炳基, 『梅泉黃玑散文研究』, 보고사, 1995, 226~227쪽.

13) 黃玑, 『梅泉野錄』, 民衆書館, 1955, 168쪽.

14) 金台俊, 『朝鮮漢文學史』, 시인사, 崔英成 譯註, 1998, 245·253쪽 참조.

15) “韓國漢文學史의 하한점을 李家源은 『朝鮮文學史』(下冊)에서 1940년대 까지로 내려 잡고 있다. 조동일은 『한국문학통사』(5권)에서 이 시기 呂圭亨, 卞榮晚, 鄭萬朝, 趙毓燮, 金昌叔, 李克魯 등을 주요 인물로 들고 있으며, 이가원은 그 자신과 李佑成을 들고 있다. 그리고 윤동제는 적어도 吳一島가 漢詩를 썼던 1940년대까지 내려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윤동제, 『한국현대시와 한시의 상관성』, 지식산업사, 2002, 41쪽 참조.)

16) 『吳然鎬文稿』, 海州吳氏宗家소장, 40~41쪽.

장을 지내기도 했던 德望있는 인사였다. 관선 면장도 지냈으며, 퇴직 후 1960년대에는 萬頃鄉校 典敎와 儒道會長을 지냈으며, 成均館 典敎와 典儀 등을 역임하였다. 김제시 성덕면 묘라리에 있는 남산서원과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에 있는 두곡서원 장의를 지내다가 1983년 별세한 인물이었다. 두남은 遺稿로 『最新式行禮』, 『諸般通信草案』 등을 남기고 있다.

양반문화가 평민문화 되어가던 조선 후기에 이르러 평민 지식층의 활약이 우리 문학사에 괄목할 만한 자취를 남기고 있다. 평민 지식층들의 漢文 文化는 전주지방을 중심으로 한문 문화 소멸기 직전만 해도 石亭, 海鶴, 艮齋, 裕齋 같은 草家 출신의 유학자들을 배출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日帝時代에 살았던 두남의 부친 芝山 또한 漢詩 68편을 남길 수 있었다. 芝山の 「憶昔年詩會遊臺」라는 칠언율시의 起聯과 頌聯을 본다.

步上新岩故故遲
風烟依舊使人悲
況於昔日題高輻
何不當年爲後期

신암리 가는 발길이 자꾸만 더디어지고
풍경 높은 여전한데 사람들을 슬프게 하네
하물며 지난날 운자를 높이 내 건 시회
어찌하여 올해에는 훗날의 기약이 없었던가¹⁷⁾

해마다 열린 詩會가 올해는 어떤 일인지 열리지 않았다. 지산은 아쉽기만 하다. 이 시의 창작 시기는 알 수 없지만 1943년 타계했던 지산이었기에, 日帝時代에 열린 詩會의 형편을 示唆해주고 있는 시다. 昔日에 있었던 詩會가 중단되었다는 사실은 민중문화로 정착되었던 漢詩 製作의 傳統이 이어져오고 있음을 傍證해 주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漢詩 創作이 소멸되어 가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17) 앞의 책, 447쪽.

두남이 쓴 〈誦邠風〉이라는 시를 본다.

稼穡艱難風夕早	농사짓는 어려움 있어 아침저녁으로 애태우다
職寒陌	
沛然甘雨煩愁消	세차게 내리는 단비에 번뇌와 근심이 사라지네
先慶尤	
生涯各處始東作	사람 사는 곳곳에 봄철 농사가 시작되고
佳御東	
勤務連阡播百苗	부지런히 두렁에 씨 뿌리니 온갖 싹 돌아 나리
遇先陌	
後稷遺風土地相	농업 신 후적이 풍속을 남겨 토지에 상관하고
職東寘	
周公聖德民產饒	주공의 덕이 백성의 생산을 풍요롭게 하네
東職漕	
嘉蔬清酌已供具	맛좋은 채소와 맑은 술을 이미 다 갖추어 놓고
虞藥冬	
香火千秋敢告昭	향불 피우며 오랜 세월 천지신명에게 아뢰네 ¹⁸⁾
賀尤號	

‘시경 빈풍을 읽으며’라는 〈誦邠風〉은 漢詩 작법상으로 볼 때 仄仄에서 瑕疵가 있다. 6句의 제6자 産자는 측성(漕)자로 되어 있는데, 평성으로 되어져야 옳다.

頸聯의 後稷은 중국 전설상의 周나라 왕조의 건설자로 周代에 농업을 다스리는 神으로 숭배되었다. 周公은 문왕의 아들이자 무왕의 동생으로, 무왕이 죽자 조카 성왕을 도와 周나라의 기초를 다진 인물이었다. 〈邠風〉은 詩經에 있는 〈國風〉의 하나로 7편으로 되어 있다. 邠은 周의 發祥地이다. 公劉로부터 古公亶父까지 도읍했던 邠땅을 중심으로 農業

18) 앞의 책, 148쪽.

關係의 노래를 묶은 것이다. 〈鬪風〉에 있는 〈七月〉¹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三之日于耜 정월에는 보습손질 / 四之日舉趾 이월에는 밭 갈기 / 同我婦子 며느리와 애 데리고 / 饁彼南畝 들 점심 가져가면 / 田峻至喜 권 농도 기뻐하셔 / (中略) / 六月食鬱及薏 유월엔 아가위랑 머루랑 먹고 / 七月烹葵及菽 칠월엔 아욱과 콩을 삶네 / 八月剝棗 팔월이면 대추 따기 / 十月穫稻 시월이면 벼 베기 /...”

두남의 〈誦鬪風〉은 매천이 1899년에 쓴 〈喜雨, 次韓魏公詩〉²⁰⁾라는 시와 대비된다. 매천이 “家自與風塵隔 전원생활은 스스로 세속과 더불어 멀어지니 / 是年豐一事無 이 해도 풍년 드는 것 외에 무슨 바람 있으랴”라고 읊었듯이, 두남 역시 尾句에서 天地神明의 農神에게 풍년을 기원하면서 끝을 맺고 있다. 빈풍을 읽으면서 농촌에 파묻혀 농사꾼으로 글 읽는 선비로 살아가고 있는 두남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두남이 김제 郡民의 날 백일장대회에 참가하고 있는〈金堤郡民白日場〉²¹⁾시를 본다.

世人最愛是重陽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중앙절이라
眞 隊 冬陽	
帽落龍山泛酒香	갓끈 풀어놓고 술 향기에 가득 취했네
藥 刪 有陽	
艷豔江楓深爛赤	요염한 강가의 단풍은 검붉게 물들어 있고
豔 東 翰	
亭亭野菊亂垂黃	키 큰 황색 들국화는 어지럽게 드리워졌네

19) 尹永春譯解, 『詩經』, 韓國書籍公社, 1983, 219쪽.

20) 이병기, 김영봉 공역, 『譯註 梅泉黃玑詩集』(중권), 보고사, 2007, 259쪽.

21) 『吳然鎬文稿』, 海州吳氏宗家 소장, 240쪽.

青 屋 支陽	서로들 아름다운 시 구절로 차례를 다투며
共題佳句爭高下	
齊 遇 豪	
團會群民兼少長	군민의 날 젊은이 늙은이 다 모여 있네
泰 眞 篠陽	
物外逍遙今已定	세상일 초월하여 살기로 이미 정한 바지만
泰 蕭 紙	
恐教塵雨染吾鄉	세속의 비로 우리 고을 물들까 두려워 지네
香 麴 虞陽	

시 작법상으로 칠언율시의 평기법의 시다. 점법을 보면 각 구의 제2자에서 ‘人(眞)와 落(藥), 艷(豔)와 亭(青), 題(齊)와 會(泰), 外(泰)와 教(效)’가 되어 평측에 어긋남이 없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각 구의 제4자에서 ‘愛(隊)와 山(刪), 楓(東)와 菊(屋), 句(遇)와 民(眞), 遙(蕭)와 雨(麴)’ 그리고, 각구의 제6자에서 ‘重(冬)과 酒(有), 爛(翰)과 垂(支), 高(豪)와 少(篠), 已(紙)와 吾(虞)’가 평측에 어긋남 없이 칠언율시에서 이상이 없다. 각운은 (陽)자 일운도저운을 이루고 있는 완벽한 칠언율시이다.

9월 9일 중앙절이다. 질계 물든 단풍과 황국화가 피어있는 군민의 날, 젊은이 늙은이가 모여 성황리에 漢詩白日場大會가 열리고 있다. 좋은 佳節에 김제 고을이 塵雨로 물들어질까 시인은 염려하고 있다.

두남문고에 있는 漢詩들 가운데, 杜南公原詩를 次韻하여 쓴 시들이 많다. 모두 49명의 시인들이 52수를 썼다. 1962년 두남의 회갑 때 초대되어 지은 시로 보이는 “長夏江村天又晴 긴 여름 강촌에 하늘도 더욱 맑은데 / 詩岩斜日聽鶯聲 시사를 연 그대 집에 피끄리 소리 들려옵니다”²²⁾라는 내용이라든가, “斗酒良辰佳宴設 맛있는 말 술 준비하여 생일

22) 앞의 책, 383쪽.

잔치에 초대하니 / 尺書招我短筇輕 짧은 지팡이 짚고 사뿐히 찾아왔습니다.”²³⁾라는 내용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생일잔치에 모여 祝壽의 漢詩를 짓고, 詩會를 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들이다. 이 때 초대된 사람들은 일가친척을 제외하고 한결같이 漢詩 作法이 가능한, 그리고 漢詩文을 지어 즐기면서 위세를 높이려고 했던 김제 지방의 품위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詩會에 참석했던 출신 지역이 밝혀지고 있는 41명을 보면 청하면 11명, 진봉면 5명, 공덕면 9명, 성덕면 5명, 백산면 3명, 만경면 4명, 광할면 1명 등으로 폭넓은 지역에서 차운하고 있다. 해방이후에도 김제지역을 중심으로 漢詩가 보편성이 있는 文學으로 남아 있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詩文은 漢詩 創作이 소멸되어 가는 과정에 있고, 즉흥시라서 그런지 그리 우수하지 않는 작품들로 분석이 된다.

두남이 쓴 229수의 詩文을 분석하여 보면 遊賞 33편 39수(칠언율시), 述懷 31편 37수(칠절 6수, 칠율 31수), 風物 6수(칠율), 讀書 20편 22수(칠율), 交遊 19편 22수(칠절 5수, 칠율 17수), 晬宴 20편 21수(칠율), 輓詞 11편 14수(칠절 3수, 칠율 11수), 詩社 12편 20수(칠율), 築城 18편 21수(記2수 제외 칠율 19수) 등으로 거의 칠언율이 왕성하게 사용되었다. 그리고 두남이 쓴 散文은 書 2, 記 3, 序跋 6, 祭文 3, 墓表 1, 鄉校通信 12편 등이 있다. 두남이 1967년, 1970년, 1975년의 3책의 漢文으로 된 메모형식의 일기 등을 남긴 것을 보면 두남은 마지막 세대의 儒學者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보여주고 있다. 농사를 지으면서 선비로서 安貧樂道의 삶을 그린 詩들이 기본을 이루고 있다. 두남시는 <誦幽風>과 같은 뛰어난 작품도 있지만, 典故나 故事成語를 사용하는 다양한 제재를 갖는 함축성은 적다.

두남의 생애는 日帝時代를 거쳐 6·25 동족상잔의 비극을 거치는 삶을 살아왔다. 게다가 장남이 부모를 모시는 당시의 풍토에서 차남으로서 두남은 孝子賞을 받을 만큼 孝誠이 지극했던 인물이었다. 두남의 思考方式은 忠孝思想과 愛國愛族에 바탕을 두고 있는 삶이기도 하였다. <讀白凡推慕錄感題> 3首와 <安義士> 3首도 그러한 愛國詩 부류들이다.

두남이 詩社에 참여하여 두남문고에 12편 20수를 남긴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해방이후에도 김제 군민들이 모여 한시백일장대회를 으레 열기도 했을 텐데, 지금은 그 詩篇들이 대부분 흔적조차 찾기 어렵게 되어 버렸다.

4. 전주의 現存 漢詩作家와 白日場大會의 특징

4.1 茶村 權寧八, 松南 李炳基의 漢詩 活動

權寧八은 1919년 순창 적성 출생으로 남원 보절에서 성장하였다. 일제시대에 대부분 그랬듯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祖父와 父親으로부터 漢學을 배웠으며, 젊어서 공주에서 열린 전국 한시백일장대회에서 장원하기도 하였다. 아호는 茶村으로 현재 전주 덕진동에서 거주하면서 오랫동안 전주의 豐沛詩社를 주관하기도하였다. 다촌의 <慕堂追慕>라는 다음 시는 荷江書院 중건 15주년을 기념하는 전국 한시백일장대회에서, 1990년 72세의 나이로 응모시 376수 가운데 장원으로 뽑힌 글이다.²⁴⁾ 그의 시를 본다.

23) 앞의 책, 382쪽.

24) 『慕堂先生追慕詩集』, 荷江書院(忠州), 豐山洪氏慕堂公波宗會, 1990, 29쪽.

會闡英名八城天 일찍 영민하여 총명함이 팔역의 하늘에 밝히고
 銑 庚 庚先
 巍然懿德踏先賢 높고도 아름다운 덕은 선현을 답습 하였네
 先 職 先先
 侍湯至孝親床下 부모 약 시중에 지극한 효는 친상 아래 이고
 陽 效 陽
 扈駕丹忠鴨水邊 어가를 호종하는 충성은 압록 강변에 이르렀네
 禡 東 紙先
 赴使明京那暇日 명 사신으로 북경 감에 어찌 한가한 날이라
 紙 庚 關
 屠倭戰陣幾經年 진치고 싸우는 곳에 왜놈 쳐부숨이 몇 해런가
 歌 震 青先
 敬虔追慕尤添切 받들고 삼가하여 추모함이 더욱 간절해지고
 先 遇 鹽
 芳馥遺陰永世傳 꽃처럼 향기 찬 남긴 음덕 길이 길이 전하리
 屋 侵 霽先

이 시는 측기법으로 지어진 칠언율시로 脚韻은 (先)자 일운도저운의 시다. 하지만 1구에서 하자가 있다. 제2자인 闡자의 측성 (銑)자와 제6자 城자의 평성 (庚)자로 되어 있어 2·6대에서 맞지 않고 있다.

慕堂 洪履祥(1549~1615)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1579년 식년문과에 장원급제하였다. 왜란 때 예조참의로 임금을 호위하여 부제학이 되었다. 1593년 대사간이 되었고, 聖節使로 명나라에 다녀온 뒤 대사성이 되었으나, 서인 成渾을 두둔하다가 안동부사로 좌천되었다. 광해군 때 대사헌이 되었지만, 북인 鄭仁弘 일파에 몰려 고향에 돌아와 여생을 보냈다. 충주시 금가면 荷潭里에 있는 荷江書院에서 향사되고 있는 인물로, 『慕堂遺稿』의 저서도 있다.

漢詩는 作者의 至高한 思想과 感情을 象徵的으로 나타내주는 簡潔한 文語體의 文이다. 다촌의 〈慕堂追慕〉시는 慕堂 洪履祥의 생애를 함축성

있게 잘 표현하고 있다. 慕堂에 대한 敬慕의 마음이 진실로 우러나오고 있는 작품이다.

松南 李柄基의 시를 본다. 송남은 1932년 김제에서 태어나 全北大學校 國語教育科 教授로 재직하였다. 全北老人大學長을 지내기도 하였으며, 역시 전주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漢詩人이다. 송남은 동국대학을 다니면서 현대문학을 하였으나 전공을 바꾸어 全南大에서 『黃梅泉詩研究』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던 漢詩 專門家이다. 수필가이기도 하며 현대시집 7권을 내놓기도 한 國文詩人이고, 『完山太平歌』라는 漢詩集도 있다. 그래서 국문시와 漢詩를 함께 남기고 있는 마지막 세대의 詩人이다. 또한 송남의 저서들을 보면 漢文學에서 散文과 韻文이 모두 능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²⁵⁾ 송남의 작품 가운데 〈立石山〉이라는 시를 본다.

碧鄉立石是先山	벽골의 입석산은 내 조상 산 이러니
陽 陌 先刪	
拜墓當時又登攀	성묘할 때마다 오르지 않을 수 없네
遇 支 職刪	
諸島滄波飛白沫	흩어진 섬 푸른 물결은 하얗게 부서지고
皓 歌 陌	
遠郊茅屋掛紈班	먼 들녘의 초가집 바둑 판 같은 들은
肴 屋 寒刪	
案前美岫如供酒	상머리 미녀가 술잔 들어 권주가인가
先 肴 冬	
背後軍峰自喜顏	뒤로한 장군봉은 스스로 희희낙락거리네
有 冬 紙刪	
擇地明堂思世德	애써 잡은 명당에서 선조 은덕 생각하고

25) 李柄基, 『完山太平歌』, 신아출판사, 1992. / 『梅泉詩研究』, 보고사, 1995. / 『梅泉黃琦散文研究』, 보고사, 1995. / 『漢詩演習』, 보고사, 1999.

眞 陽 霽
怡吾伴鶴白雲間
庚 藥 文刪

내 친구 학과 흰 구름 사이 즐긴 마음이니²⁶⁾

한시 작법상으로 보면 이 시는 평기법으로 지어졌으며, 칠언율시의 (刪)자 일운도저운의 시다. 근체시 3대 작법에도 흠점이 없다.

입석산은 김제 청하면에 있는 산이다. 여기에 시인의 조상 묘들이 있고, 상석과 墓碑도 있다. 묘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텃밭과 농장이 있어 시인이 자연스레 오가는 곳이다. 김제 지평선의 못 섬들이 창과 속에 있고 김제평야가 끝없이 펼쳐지고 있다. 시인은 입석산에 오를 때마다 조상과 부모의 은덕을 생각하며 鶴과 함께 즐기는 마음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송남의 漢詩는 대략 300수 발표로 집계되고 있다. 작품 중에서 전북 지방의 지명을 제목으로 한 〈登彌勒山〉, 〈乾止山〉, 〈麒麟峰〉, 〈鄭嶺時〉, 〈內藏觀楓〉 등이 있다. 〈鶴山趙鍾業先生回甲壽韻〉, 〈淵民李家源先生七十四歲壽詩〉, 〈石田李丙疇先生古稀壽詩〉, 〈春岡柳在泳先生晬韻〉의 한시들은 가까운 忘年之交들의 祝壽를 읊은 것이다. 그의 시에는 기행시로 〈美洲行〉이나 〈論敦〉을 읊은 시도 있다. 구라과를 여행하고 나서 연작시로 쓰여진 시들이다. 그리고 매천의 絶命詩에 次韻한 〈次黃玆絶命詩四首韻〉도 있다. 송남의 대표작 〈完山太平歌〉²⁷⁾는 칠언시로 58행이나 되는 장편시이다. 후백제의 전통을 이은 豊沛之館의 도시 전주의 풍물을 읊은 것이다.

1992년에 출판된 이병기의 漢詩集 『完山太平歌』의 평을 썼던 柳濟寔은 「李炳基教授의 漢詩」라는 글에서, “그에게 현대 서구인이 지닌 오디

프스의 비극이나 숙명적인 비극 의식은 없다...이 세계의 근원적인 모순의 融化和 自足은 그의 詩世界를 점유하는 핵심요소로서 그의 시 구석구석에 너그러운 懷抱를 자아낸다.”²⁸⁾라고 평하고 있다.

시인의 선산인 입석산 정상 바위에는 매천 황현이 鼎足으로 추앙한 바 있는 松齋 宋日中(1632~1717)의 시가 새겨져 있다. 송남은 송재의 〈立石山〉의 漢詩를 발굴하기도 하여 김제군지에 소개하기도 하였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茶村 權寧八이나 松南 李炳基는 현재도 全州 地方을 중심으로 漢詩를 創作해오고 있는 마지막 세대이다.

4.2 井邑 漢詩 白日場大會의 作品 樣相

1990년대에 발간했던 漢詩集의 책자나 한시백일장대회의 개최 내용을 통해서 漢詩 盛衰樣相의 脈絡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90년대 이후 출판된 한시집을 보면, “善友詩會, 『善友詩會詩集』, 서울 을지출판공사, 1991. / 오광익, 『无低囊』, 이리 원광사, 1993. / 허범도, 『자연을 느끼며 삶을 생각하며』, 서울 이문사, 1998. / 정병희 외, 『晉陽風月集』, 진주 이화문화출판사, 1999. / 김용직, 『碧天集』, 서울 토우, 1999. / 蘭社同人, 『蘭社詩集』, 서울 토우, 1999.”²⁹⁾ 등을 들 수 있다.

1995년 裴氏宗親會에서 ‘景德祠落成紀念祝賀 漢詩白日場大會’를 개최하였다. 이때의 원고를 모아 만든 『漢詩白日場詩集』의 序文에 의하면, 놀랍게도 축시가 팔백여 수의 瓊章이 쇄도하였다고 大宗會長 裴命仁씨는 기술하고 있다.³⁰⁾ 이는 아직도 漢詩가 민중 속에 자리 잡고 한시

26) 李炳基, 『完山太平歌』, 신아출판사, 1992, 118쪽.

27) 위의 책, 131쪽.

28) 앞의 책, 137쪽.

29) 윤동제, 『한국현대시와 한시의 상관성』, 지식산업사, 2002, 10쪽 참조.

30) 裴氏宗親會, 景德祠落成紀念祝賀 『漢詩白日場詩集』, 裕昌文化史, 1995.

제작이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1998년에 실시된 慕德祠 全國 漢詩白日場大會에서는 대회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大會長이었던 漱石 金萬榮이 쓴 詩集序에 대회의 面貌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어 사라져가는 한시문학에 대한 집착을 볼 수 있었다.

“靑陽郡 第十回 七甲文化祭 일환으로 개최한 全國漢詩白日場大會에서, 漢詩의 응모자는 전국에서 紙上韻이 599수요 卽席韻이 184수로 도합 783수였다. 당시 개최 장소는 청양군 목면 송탄리 藏龜洞 勉菴先生 聖域地 慕德祠 광장이요, 일자는 1997년 9월 29일이었다. 詩題는 “追慕勉菴崔益鉉先生”이고, 卽席落韻成詩는 “願南北統一”이었다. 수상자는 都合 六十二員이었다. 시상에 壯元郎은 具冠服하고 管絃奏樂裡에 使善吟者로 朗吟其詩하고 鼓舞士氣하니 振起儒風이 이와 같았다. 대회장에 國賓으로 日本人이 對馬島에서 하객으로 참가하니 詩에는 국경이 없음을 실감하였다.”³¹⁾

2006년 全國 市道別 祝祭는 726개로 全北에서는 33개가 대상이 되었다. 보통 시군 단위로 축제를 하면서 한시백일장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전북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 규모의 한시백일장대회는 全州와 井邑에서 개최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全州의 沛城詩社에서 주관하고 있는 한시백일장대회를 간단히 살펴보고, 井邑文化院에서 주최하고 있는 한시백일장대회의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豊沛之館의 고장 전주에서는 沛城漢詩會의 주관으로 전국한시백일장대회를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2007년 금년에도 단오예술제를 맞이하여 6월 19일 제25회 전주 한시백일장대회를 개최하였다. 모두 186명이 참여하였다고 고선위원으로 참여한 다촌 권영팔은 말하고 있다. 全州沛城詩社는 1975년에 창립되었으며, 매월 21일 전주향교 명륜당에서

한번 씩 모여 詩社를 하고, 모여진 한시가 1000수 이상 일정한 분량이 되면 출간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물론 백일장대회의 수상작품도 沛城社詩稿에 수록하고 있다. 제5집은 1993년에, 제6집은 1997년에 출간하였으며, 앞으로 제7집을 발행한다고 한다. 1993년 5집에 있는 회원은 119명이요, 1997년 당시 6집에 있는 회원은 129명이었다. 회원은 전주를 중심으로 전북 전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70세 이상의 고령층이 중심이 되고 있었다.

다촌이 쓴 글 『沛城社詩稿』第六輯의 跋文에 있는 글을 본다.

“19세기 말엽 物質文明의 西方風潮와 新文化에 밀려 難學의 漢文이 쇠퇴하고 現代詩風이 팽창하여 漢詩의 입지가 掃如하니 寒心之事가 아닐 수 없다. 회고컨대 20년 전 白髮은 古人이되고 少壯은 白髮이 되었으며, 新入詩友는 稀罕하니 日後의 詩社를 누가 運營하여 漢詩의 命脈이 계속 것인가.”³²⁾

젊은 사람들이 漢詩에 관심이 없고, 한시창작의 전통이 衰滅되어가고 있음을 다촌은 悲感하게 생각하고 있다.

井邑文化院은 1964년 11월 全北에서는 처음으로 창립된 전통을 가지고 있다. 井邑은 奇大升의 학맥과 淳昌 태생의 蘆沙 奇正鎭이 살았던 장성과 인접한 지역이다. 신라 말 崔致遠이 太山太守로 있으면서 음풍 소요하던 披香亭의 정취가 어린 곳이다. 정읍 七寶에 있는 武城書院은 孤雲 崔致遠과 조선 중종 때 태인현감 신잠을 향사하기 위해 세운 서원으로,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 때에도 47개 미철서원 가운데 하나였다. 성종 시에 不憂軒 丁克仁의 〈賞春曲〉이 만들어졌던 문학 전통이 면면히 이어오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물 좋은 고을 井邑은 山紫水明한 內藏山

31) 漱石 金萬榮·愚齋 崔健植, 『全國 漢詩白日場詩集』, 도서출판 불이, 1998.

32) 沛城詩社, 『沛城社詩稿(第六輯)』, 新亞出版社, 1997, 146쪽.

이 있으며, 東學革命運動의 발상지이면서, 녹두장군 全琫準(1854~1895)의 東學革命의 실패를 한탄한 ‘파랑새요’의 진원지이기도 하다.

정음에서 1994년 갑오동학혁명 1백주년을 기념하여 全國漢詩公募展을 개최하였다. ‘甲午東學革命’을 詩題로 내걸고 井邑郡文化院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全國漢詩公募展에 전국 漢詩 동호인들로부터 선풍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아쉽게도 주위의 이해와 관심부족으로 추진이 중단되고 말았다. 2001년에 와서야 ‘井邑詞’를 詩題로 하는 제2회 全國漢詩公募展을 개최하게 되었다. 압운은 明·情·名·行·成이었고, 응모편수는 387수였다. 참여한 지역으로 보면 대전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참여하고 있었으며, 당시의 考選委員은 權寧八, 愼思範, 朴金圭였다.

4회 고선위원을 맡은 孔鍊雄씨는 그가 쓴 「漢詩考評說」에서, “西歐風潮에 휘말려 전통문화가 송두리째 뽑히게 되어 古典文學史上 꽃으로 불리는 漢詩마저 斷脈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국가는 망해도 문화는 존속하는 것인데 文化마저 단절되면 民族의 魂이 꺾임으로써 국가와 민족이 共滅하게 되니 이 얼마나 憂慮스러운 일이겠는가.”³³⁾라고 주장하며 쇠퇴해가고 있는 漢詩文化의 現實을 아쉬워하고 있다.

2006년 제7회 한시공모전의 詩題는 전북기념물 제33호인 ‘萬石湫’였다. 압운은 歌·河·多·坡·何였으며, 응모편수는 344수였고, 고선위원은 孫坪琦, 朴景來, 宋明錫이었다. 그리고 매년 공모했던 한시의 詩形은 한결같이 칠언율시를 고착화 하고 있었다. 이밖에 정음문화원에서는 한시백일장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6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었으며, 개최한 내용을 잘 정리하여 문헌 보관에 이르기까지 칭찬할 만 하였다.

井邑文化院長이었던 林南坤은 “일곱 번의 공모전 결과 國內 最高權威

의 漢詩人 登龍門으로 도약할 수 있었음에 깊이 감사드린다.”³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자료를 통하여 日帝時代의 1930년대나 1960년대에 비하면 규모가 크게 축소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

1) “매천의 제자 芝村 權鳳洙(1872~1941)는 구례 광의면 지촌리 출신으로 왕수환과 함께 호양학교에서 한문을 가르쳤으며, 매천집 발간의 핵심 인물이었다. 1933년 여수 忠愍祠 重建紀念 백일장에서 3,000여명 가운데 3등에 입상하는 등 詩才가 뛰어났다.”³⁵⁾

2) “1960년 3·1절 기념으로 서울 大東文友社에서 전국적으로 漢詩를 모집 간행한 『제9회 漢詩當選集』에는 136명의 七言律詩가 6등급으로 분류되어 수록되어 있으며, 2개월 간격으로 漢詩를 考選 發表하고 있었다. 전국적으로 최소한 2천명 이상의 한시창작 인구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추정해 볼 수 있다.”³⁶⁾

정음문화원에서 1년에 한번 개최하고 있는 전국 한시백일장대회의 응모 편수는 3~400편인데, 그나마 卽席韻이 아니라 韻字를 주고 2개월 기간을 주어 漢詩를 모집하고 있는 紙上白日場大會이다. 위의 2자료와 비교해 보면 확연히 漢詩 創作의 풍토가 衰微해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을 생각해본다면, 2000년대 들어서서 정음문화원에서 개최해오고 있는 한시백일장대회는 전국 규모의 획기적인 대행사임에 틀림없다.

1945년 8월 해방이후 혼란기와 6·25를 거치는 와중에서 삶의 존망이 불안했고, 먹고살기 힘든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60세를 전후하는

34) 林南坤편, 『井邑文化院 42年史』, 井邑文化院, 2007, 475~476쪽.

35) 金正煥, 『梅泉詩派研究』, 全南大 博士學位 論文, 2006, 37쪽.

36) 주승택, 「개화기 한문학의 변이현상」, 『관악어문연구』 제10집,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5, 370~371쪽.

33) 孔鍊雄, 「漢詩考評說」, 『第4回 漢詩公募展集』, 井邑文化院, 2004, 471쪽.

나이가 되었다. 漢字를 배우지 못했고, 國漢文도 아닌 한글 전용세대가 한국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漢文은 영어를 비롯한 外國語에 밀려 인기가 없었고, 갈수록 漢文을 배우지 않았던 세대가 성장되어가면서 漢詩를 짓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도 줄었다. 해방이후 南北韓이 나뉘져 대립하였고, 漢字를 기본글자로 쓰고 있는 中共과의 단절로 韓國漢文學은 1992년 수교가 될 때까지 극도로 위축되어 버렸기 때문이기도 하다. 地自制를 실시하면서 地域文化 祝祭의 일환으로 都市道에서도 한시백일장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그 숫자가 2000년대로 들어와 조금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漢詩 製作 인구는 한정적이다. 그러나 한시백일장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60대 이상 高齡人口가 중심이 되고 있다. 漢字 解讀 能力이 우수한 漢文學者는 점점 줄어들고, 원로 漢詩人들이 타계해 가고 있어 가뭄에 콩 나듯이 개최되고 있는 한시백일장대회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지만 긍정적인 점이 있다면, 1970년대 중반이후 양산되어온 漢文學科와 中文學科 졸업생들이 성장해오고 있다. 정읍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7년 제8회 漢詩公募展 또한 “蘆嶺”을 詩題로 漢詩를 모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年例事業으로 계속 추진해 가리라는 鄭昌煥 정읍문화원장과 金熙宣 사무국장의 대단한 의지가 있었다.

5. 結論

본래 漢詩는 中國詩이지만 우리나라에 유입되어 온 이후, 朝鮮 後期에 이르러 朝鮮詩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委巷人들도 詩社를 조직하여 漢詩를 創作하고 활동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漢詩가 民衆性이 있는 文

學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全州地方을 중심으로 호남3절인 梅泉, 石亭, 海鶴의 왕성한 漢詩 創作 활동으로 全羅道地方에서도 漢詩를 짓고 읊는 것이 一般 民衆들의 文化 風土가 되어져 왔다.

이러한 문학 전통의 기반 위에서 芝山 吳在燾도 日帝時代에 書堂 훈장생활을 하면서 漢詩集을 남겼다. 그리고 그의 아들 杜南 吳然鎬는 解放以後 민중성이 있는 소재로 七言律詩를 중심으로 한 吳然鎬文稿를 남길 수 있었다. 茶村 權寧八이나 松南 李炳基의 경우 현재도 전주 沛城詩社를 중심으로 漢詩를 짓고 생활해오고 있으며, 이들을 통하여 漢詩 創作의 脈絡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최근 정읍지방에서 추진되고 있는 전국 규모의 한시백일장대회의 現況과 規模를 살펴본바, 1930년대나 1960년대에 비해 크게 축소되어 실시되고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다시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로, 羅末 최치원의 近體詩를 시작으로 하여 高麗와 朝鮮의 起伏 盛衰를 거쳐 오면서 朝鮮末에 오면 科體詩와 같은 독특한 漢詩體 내지는 樂府體詩와 같은 하부 개념의 시들이 많았다. 개화기의 漢詩壇을 정리하고 보면 1900년대 梅泉中心의 漢詩壇에서는 七言律詩가 가장 규칙성 있는 便宜性으로 活用되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로, 1940년대 芝山·杜南의 時代에 이르러서는 七言律詩가 보편화된 대중적인 활용시대를 재발견하게 되었다. 杜南 시기의 漢詩壇은 素材의 다양성이 民衆 素材로 치환되고 형체도 거의 七言律詩가 왕성하게 활용되었다. 漢詩라고 보면 공식적 활용의지가 확실하게 대중의 선망 대상이 되었다.

셋째로, 1980년대 이후 茶村·松南 時代에 오면 각운법·평측법·점법까지 七言律詩를 고착화하며 復興 意志로 活用하면서, 漢詩의 고전적 분석 비평과 西歐的 韻律, 素材, 科學的 分析 뿐만 아니라 大學에서 전공한 漢詩壇의 확립까지 노력하는 의지를 볼 수 있었다.

■ 참고문헌

1. 著書

- 黃玟, 『梅泉全集(全五)』, 全州大 湖南學研究所, 1984.
黃玟, 『梅泉野錄』, 國史編纂委員會, 民衆書館, 檀紀 4288(1955).
崔昇孝, 『黃梅泉關聯人事 文墨萃編(上·下卷)』, 대한고과서, 1985.
『吳然鎬文稿』, 海州吳氏宗家소장, 240쪽.
이병기·김영봉역, 『譯註 梅泉黃玟詩集』, 보고사, 2006.
김영철, 『韓國 開化期 詩歌 研究』, 새문사, 2004.
李炳基, 『完山太平歌』, 신아출판사, 1992.
李炳基, 『梅泉黃玟散文研究』, 보고사, 1995.
井邑文化院, 『4회, 5회, 6회, 7회 漢詩公募展集』4권, 2003~2006.
林南坤편, 『井邑文化院 42年史』, 井邑文化院, 2007.
裴氏宗親會, 景德祠落成紀念祝賀 『漢詩白日場詩集』, 裕昌文化史, 1995.
漱石 金萬榮·愚齋 崔健植, 『全國 漢詩白日場詩集』, 도출판 불이, 1998.
沛城詩社 『沛城社詩稿 第五輯, 六輯』新亞出版社, 1993, 1997.
『慕堂先生追慕詩集』, 荷江書院(忠州), 豊山洪氏慕堂公派宗會, 1990.
閔丙秀, 『韓國漢詩史』, 太學社, 1997.
李家源, 『朝鮮文學史』(上),(下), 태학사, 1997.
윤동재, 『한국현대시와 한시의 상관성』, 지식산업사, 2002.
이규호, 『개화기 변체한시연구』, 형설출판사, 1986.
조동일, 『한국문학통사』5권 제3판, 지식산업사, 1994.
尹永春譯解, 『詩經』, 韓國書籍公社, 1983.
金台俊, 『朝鮮漢文學史』, 시인사, 崔英成 譯註, 1998.

2. 단행본 및 論文

- 金正煥, 『梅泉詩派研究』, 全南大 大學院 國語國文科 박사학위논문, 2006.
황수정, 『梅泉 黃玟의 詩文學 研究』, 朝鮮大 大學院 國語國文科 박사학위논문, 2006.

- 김영봉, 『黃玟詩研究』, 全北大 大學院 석사논문, 2003.
주승택, 「개화기 한문학의 변이현상」, 『관악어문연구』제10집,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5.
주승택, 「국한문 교체기의 언어생활과 문학 활동」, 『大東漢文學』第二十輯, 大東漢文學會, 2004.
구사회, 「石亭 李定稷의 詩意識과 文藝論의 特質」, 『韓國言語文學』第54輯, 2005.
金熙宣, 「漢詩의 魅力」, 『井邑文化』제13호, 2004.

〈투고일 : 2007. 6. 30. 심사일 : 2007. 7. 16. 심사완료일 : 2007. 8. 10.〉

〈Abstract〉

Study of the Rise and Fall of Chinese Poetry (漢詩) since Independence from Japan

Kim, Young-bung

Chinese poetry began to be considered the poems of Korea in the later part of the Chosun Dynasty. Three famous poets in particular, who were called "three master poets of Honam(湖南三傑)", led energetic creative activity mainly in Jeonbuk province. Thanks to them writing and reciting Chinese poetry became a cultural entertainment for ordinary people in Jeolla province.

Zisan(芝山) and his son, Dunam(杜南), who lived in the period under the rule of Japan and after the independence from Japan respectively, left a collection of Chinese poems, concerned with the lives of the common people.

Dachon(茶村) and Songnam(松南) have written Chinese poetry at Paesongsisa(沛城詩社) in Jeonju. We also know that Chinese poetry is still written across Korea through the Chinese poetry contest held recently in Jeongup city; however, it is not so popular as in the past.

In the 1900s Chilanyulsi(七言律詩) was established with Maechon(梅泉) as the central figure and in the 1940s (the time

of Zisan) Chilonyulsi(七言律詩) was popularized. In the 1980s(the time of Dachon and Songnam) many phenomena appeared: the trial to revive Chilonyulsi(七言律詩), the use of western rhyme and scientific analysis, its adoption as a major subject in colleges, and the establishment of Chinese poetry societies.

Key word : Chilanyulsi(七言律詩), the poems of Korea, the Rise and Fall(盛衰) of Chinese Poetry(漢詩)